

사회 >

“인권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 감소”… 인권위, 30일 실태조사 발표

이학준 기자

입력 2022.11.29 14:00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조선DB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식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인권위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재 로얄호텔에서 ‘2022년 국가인권통계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9043가구(1만6148명)를 대상으로 인권의식과 인권침해, 차별 경험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한국의 인권상황은 1년 전과 비교해 비슷하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다. 다만 전년 대비 ‘좋아지고 있다’는 답변은 5.1%포인트(p) 감소했고, ‘나빠지고 있다’는 응답은 같은 수준이었다.

특히 설문에 참여한 사람의 52.8%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이 존중받는다고 했다. 인권 존중도는 여성(84.6%), 아동·청소년(81.0%), 노인(71.0%), 장애인(50.4%), 이주민(36.2%) 순이다.

인권침해나 차별을 받는 집단으로는 경제적 빈곤층(38.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장애인(33.7%), 결혼이주민·이주노동자(20.3%), 학력·학벌이 낮은 사람(16.6%)이 뒤를 이었다.

금융·건강 관련 데이터 제공은 개인정보 유출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 또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9.1%가 동의했고, 기후변화가 취약계층에 더 심각하다는 의견은 48%였다.

30일 열리는 토론회는 이성훈 경희대 미래문명원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김종우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인권의식 및 인권교육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정병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소수자 지인의 존재는 인권의식을 바꾸는가’를 주제로,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인권침해와 차별 경험이 개인 삶과 의식에 가져온 결과’를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선다.
